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기 경영을 위한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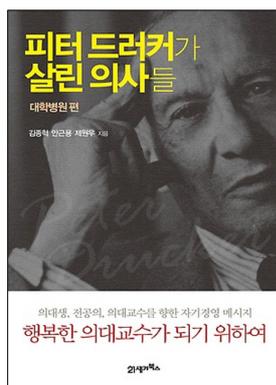
천경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One of the Best Guideline for the Self Management of Medical Teachers

Kyung Hee Chun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저서: 피터 드러커가 살린 의사들: 대학병원 편

편저자: 김종혁, 안근용, 제원우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연도: 2014년

쪽수: 364쪽

“며칠 전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이 책을 추천 받았어요. 혹시 읽어봤어요?”

대화가 필요했던 어느 교수님의 질문이 필자가 처음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 많은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연구나 교육, 진료와 경영, 심지어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이슈들로 대화를 나누지만 어느 책의 어떤 내용에 대해 열띤 공감을 나누게 되는 일은 드물다. 최근 이 책에 대한 관심은 본교에서 있었던 교수연수회에서 의료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이 도서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의과대학 교수의 삶’과 ‘행복’, 그리고 ‘사명’과 ‘자기경영’이라는 용어들이 그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되고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의 생각이 적극적인 깊이 읽기과정을 통해 의학 전문가이면서 교수로 살아야 하는 의사들의 삶에 성찰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이 책 한 권으로 피터 드러커의 저서 ‘자기경영노트’와 ‘매니지먼트’, 그 외의 다수 저서에서 기술되었던 피터 드러커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자기 경영과 관련한 저자들의 깊이 있는 성찰을 만나는 기쁨과 조우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저자들의 창작에 초석이 된 사명 교수의 “묵상록”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종사하는 의과대학 교수의 3가지 사명이 소개된다. 환자에 대한 책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학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사명이며, 환자를 위한 탁월성의 추구, 병원과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헌, 그리고 후학 양성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의사직과 교수직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제시되는 ‘탑 매니지먼트’의 바른 예와 그른 예들은 저자들의 경험과 함께 왜 의과대학 교수가 리더가 되어야 하며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최고의 진료가 최신택진료가 아니라는 사실과, 최상과 최고의 기준이 환자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환자마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협력조직의 일원이자 공동체 의식을 지닌 자기 경영자 즉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 매우 공감하며, 실제로 임상적 문제가 아닌 경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고민을 시원스레 지적하고 그 처방을 제안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환자에 대한 사명’을 기술한 장에서 환자를 의료진과 같이 치료하는 주제로 생각하여 환자의 병과 환자를 동일시하지 않을 것과, 동반자적 신뢰관계에 입각한 작전 회의식 대화를

제안하고, 전인적이고도 장기적인 관계의 형성, 즉 치료는 기본이며 관계 자산이 더 중요함을 피력한다. 8달러짜리 피자주문자를 4천 달러짜리 잠재적 가치로 인식하는 도미노 피자의 예처럼 고객의 인식, 관계구축 행동, 그리고 공감표현과 관계 비전 제시 등의 경영적 노하우가 성공적인 대학병원의 운영과 의사 개인의 경영에도 기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아울러 많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품질의 측정지표로서 사고율, 실망률, 동의율, 준수율 등을 제시하고, 진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자 케이스의 프리뷰와 리뷰, 학술적 업데이트와 치료결과의 정량화, 진료실 활영 등을 제시하여 환자에 대한 사명 또한 계획되고 실행되고 평가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의학에 대한 사명’을 기술한 장으로, 의과대학의 교수가 얼마나 교육에 헌신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의학교육시스템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창출하고 이를 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의사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하며 그 기반에 인성 교육,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교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업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 혹은 콤플렉스를 만들지 말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긍심과 뚜렷한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발전시켜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통찰, 자립,

용기 등 인간의 품성에 관계되는 것이며, 수재나 천재의 리더십이 아닌 좀 더 겸손하고 지속적인 리더십, 헌신과 결단, 목적의식이 뚜렷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이 단편적이고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다른 전문가들과 통합시켜나가고, 끊임없이 후학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연구, 진료 및 관리나 경영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기 경영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개별 경영인으로서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의사이자 교수인 대학병원 봉직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교수의 5가지 즐거움, 즉 행복을 위한 5계명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행복은 자신이 정의하는 것이며, 행복의 지향점과 하루하루의 행복 단위를 인식하고, 집착이 아닌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전문가로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하는 책임과 그 의미를 안내하고, 의학 분야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기 경영자들을 응원하는 하나의 지침서이자 한국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자기 경영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피터 드러커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만난 이 창의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주는 즐거운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본다.